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음운 개념 문제

1. <보기>를 참고하여 외국 학생이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조언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점] (고1 2014년도 9월 12번)



< 보 기 >

조음방법 \ 조음위치		두 입술	윗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안울림 소리	파열음 ㅂㅃㅍ	ㅈㅊㅌ		ㄱㅋㆁ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① '불'은 '돌'처럼 혀끝을 윗잇몸에 닿게 해서 소리 내야 해.
- ② '불'은 '굴'처럼 혀바닥을 여린입천장에 밀착시켜 소리 내야 해.
- ③ '불'은 '놀'과 달리 두 입술을 맞닿게 하면서 목청을 울리지 않고 소리 내야 해.
- ④ '불'은 '돌', '굴'과 달리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 내야 해.
- ⑤ '불'은 '돌', '놀'과 달리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목청을 울리며 소리 내야 해.

2. 다음은 자음 습득에 관한 탐구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1 2017년도 9월 14번 변형)

'엄마'와 '아빠' 중에 어느 단어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서 발음하기가 쉬울까? 자음은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을 때 때문에 제약이 많아 연령에 따라 습득되는 자음들이 다르다. 연령에 따른 자음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가 가장 먼저 발달한다. 그 중에서도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비음이자 울림소리인 'ㄹ'이 2세 때 습득된다. 그 후 3세 때에는 파열음이자 안울림소리인 'ㅃ'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ㄹ'을 'ㅃ'보다 먼저 습득하게 되므로 아동들은 부모의 호칭 중 음성학적으로 '아빠'보다 '엄마'를 보다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이다.

- ① 'ㄹ'은 'ㅃ'과 달리 목청을 울리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발음하기 쉽겠구나.
- ② 'ㄹ'은 'ㅃ'과 달리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발음하기 쉽겠구나.
- ③ 'ㄹ'은 'ㅃ'보다 더 늦게 습득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구나.
- ④ 'ㄹ'과 'ㅃ'은 모두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므로 자음들 중 가장 먼저 습득되는 편이겠구나.
- ⑤ 아기들은 '아빠'보다 '이모'의 발음을 더 쉽게 발음할 수 있겠구나.

국어 영역

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1 2011년도 3월 11번)

< 보 기 >

자음 중 안울림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도 된소리는 예사소리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고, 거센소리는 된소리보다 더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

- ① 열음이 단단하게 열어서 깨지지 않는다.
- ② 주먹밥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 ③ 문이 덜거덕 열린다.
- ④ 수레가 떨거덕 소리를 내며 굴러간다.
- ⑤ 햇빛이 부엌게 칠판을 비추었다.
- ⑥ 안개가 뿌엷게 낀 아침이었다.
- ⑦ 일찍 일어나 마당을 삭삭 쓸었다.
- ⑧ 마루를 걸레로 싹싹 문질러 닦았다.
- ⑨ 부모님의 의견을 좃아 진로를 정했다.
- ⑩ 동생은 형을 좃아 방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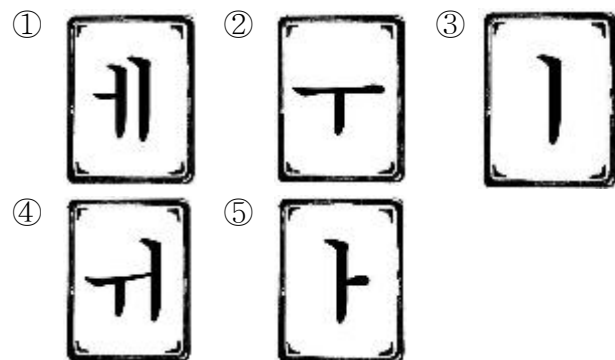
4. 다음 표를 참고할 때, <보기>의 놀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는? (고1 2017년도 9월 13번)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ㅐ	ㅊ	ㅑ	ㅉ
저모음	ㅓ		ㅕ	

< 보 기 >

◎ 한글 모음 놀이의 승리 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 카드를 제시할 것
-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에 둔 상태로 발음하는 모음
-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하는 모음
- 입을 조금 벌리고 혀가 입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상태로 발음하는 모음



국어 영역

5. <보기>를 바탕으로 단모음의 변별적 자질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3 2020년도 4월 13번)

< 보 기 >

변별적 자질이란 한 음소를 이루는 여러 음성적 특성들을 별개의 단위로 독립하여 표시한 것이다. 하나의 변별적 자질은 오로지 두 부류로만 구별해 주며, 해당 변별적 자질이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 부류는 '+', 그렇지 않은 부류는 '-'로 표시한다.

[자료 1] 단모음의 변별적 자질

- [후설성] : 혀의 전후 위치와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이 중립적 위치보다 뒤에 놓이는 성질. 후설 모음은 [+후설성], 전설 모음은 [-후설성]이다.
- [고설성] : 혀의 높낮이와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이 중립적 위치보다 높아지는 성질. 고모음은 [+고설성], 중모음과 저모음은 [-고설성]이다.
- [저설성] : 혀의 높낮이와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이 중립적 위치보다 낮아지는 성질. 저모음은 [+저설성], 중모음과 고모음은 [-저설성]이다.
- [원순성] :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리는 성질. 원순 모음은 [+원순성], 평순 모음은 [-원순성]이다.

[자료 2] 단모음 체계표

혀의 전후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ㅡ	ㅓ
중모음	ㅕ	ㅖ	ㅗ	ㅛ
저모음	ㅙ		ㅜ	

- ① ‘-’는 [+후설성]으로, ‘|’는 [-후설성]으로 표시한다.
- ② ‘ㅓ’와 ‘ㅗ’는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
- ③ ‘ㅖ’와 ‘ㅓ’의 동일한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원순성]과 [-저설성]이다.
- ④ ‘ㅕ’와 ‘ㅛ’는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동일하고,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
- ⑤ ‘ㅙ’와 ‘ㅗ’는 [후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동일하고,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

6.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ㅓ
중모음	ㅕ	ㅖ	ㅗ	ㅛ
저모음	ㅙ		ㅜ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을 확인할 수 있군.

- ① 2개의 전설 모음
- ② 2개의 중모음
- ③ 3개의 평순 모음
- ④ 3개의 고모음
- ⑤ 4개의 후설 모음

국어 영역

7. ㉠에 사용된 모음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2 2017년도 학업성취도평가)

㉠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공간 정보가 국가 차원의 자연재해 예측 시스템에도 활발히 활용된다면 한층 정밀한 재해 예방 및 대비가 가능해질 것이다.

- ① 첫 음절의 모음 ‘니’는 입술 모양에 따라 나누면 원순 모음이군.
- ② 둘째 음절의 모음 ‘ㅣ’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나누면 후설 모음이군.
- ③ 셋째 음절의 모음 ‘ㄱ’는 혀의 높이에 따라 나누면 저모음이군.
- ④ 넷째 음절의 모음 ‘ㅡ’는 입술 모양에 따라 나누면 원순 모음이군.
- ⑤ 다섯째 음절의 모음 ‘ㄱ’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나누면 전설 모음이군.

8. <보기>를 참고하여 철수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3 2013년도 10월 A 11번)

< 보 기 >

○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높이(입의 개폐) 입술의 모양	혀의 최고점 위치		후설 모음	
	전설 모음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폐모음)	ㅣ	ㄱ	ㅡ	ㅓ
중모음(반개모음)	ㅕ	ㅗ	ㅜ	ㅛ
저모음(개모음)	ㅙ	ㅛ	ㅜ	ㅟ

철수 : 영화야, 넌 ‘게’와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니?
난 잘 안 돼서 말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 ① ‘개’를 발음할 때는 ‘게’와 달리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야해.
- ② ‘개’를 발음할 때는 ‘게’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해.
- ③ ‘게’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소리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해.
- ④ ‘개’를 발음할 때는 ‘게’에 비해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입을 조금만 벌려야 해.
- ⑤ ‘게’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해.

국어 영역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 < 보 기 > —

선생님 : 최소 대립쌍이란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최소 대립쌍을 이루려면 두 단어의 분절 음운 개수가 동일해야 하고, 최소 대립쌍을 만드는 두 음운의 성질이 동질적이어야 해요. 분절 음운은 분절 음운끼리, 비분절 음운은 비분절 음운끼리 대응해야 하며 자음, 모음, 반모음도 해당 종류끼리 대응해야 해요. 예를 들면 ‘살’과 ‘알’은 분절 음운의 개수가 다르므로, ‘살’과 ‘사이’는 ‘ㄹ’과 ‘ㅣ’가 각각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해요. 이제 아래 묶인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눈 [目] [눈]-눈 [雪] [눈:], 머리-머리, 이마-치마, 하루-나라, 키-아이

학생 : (㉠)
 선생님 : 네, 맞아요.

- ① 눈 [目] 과 눈 [雪] 은 장단의 차이에 의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해요.
- ② ‘머리’와 ‘머리’는 ‘ㄹ’과 ‘ㅣ’의 차이에 의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해요.
- ③ ‘이마’와 ‘치마’는 ‘ㅇ’과 ‘ㅈ’의 차이에 의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해요.
- ④ ‘하루’와 ‘나라’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음운이 서로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해요.
- ⑤ ‘키’의 ‘ㅋ’과 아이의 ‘ㅏ’가 각각 자음과 모음의 해당하므로 ‘키’와 ‘아이’는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해요.

12.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 < 보 기 > —

국어의 단모음을 혀의 앞뒤 위치와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혀의 높낮이 \ 입술 모양	혀의 앞뒤		후설 모음	
	전설 모음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ㅐ	ㅊ	ㅑ	ㅉ
저모음	ㅓ		ㅕ	

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놓이는데 그 위치는 대체로 경구개 부근이고, 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이며 연구개 부근과 매우 가깝다. 혀의 높낮이는 입의 벌어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혀의 높이가 높으면 입이 적게 벌어지고 낮으면 입이 많이 벌어진다. 원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이고 평순 모음은 그러지 않는 모음이다.

단모음들 간의 차이는 단모음의 분류 기준과 관련된다.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을수록 두 모음의 관계는 가까워지고, 차이점이 많아질수록 두 모음의 관계는 멀어진다. 예를 들어 ‘ㅏ’와 ‘ㅓ’는 혀의 앞뒤 위치에서만 차이를 보이므로 가까운 관계이지만 ‘ㅏ’와 ‘ㅑ’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서로 먼 관계이다.

- ① ‘ㅡ’를 발음할 때보다 ‘ㅓ’를 발음할 때 입이 많이 벌어진다.
- ② ‘ㅊ’에서 ‘ㅉ’로 발음을 바꿀 때는 혀의 최고점이 연구개 부근으로 옮겨 간다.
- ③ ‘ㅐ’와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가 같으면서 입술 모양만 둥근 모음은 ‘ㅑ’이다.
- ④ ‘ㅑ’를 발음할 때와 ‘ㅉ’를 발음할 때 모두 혀의 높이가 고모음보다 낮고 저모음보다 높다.
- ⑤ 단모음의 분류 기준으로 두 모음의 관계를 판단하면, ‘ㅈ’와 ‘ㅊ’보다는 ‘ㅈ’과 ‘ㅉ’가 더 가깝다.

